

아직도 개탄지 못하였니?

1978. 2. 13-16 4일간 임종

월간 충현



다니엘이 되어 보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왕의 명령을 어기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드렸다(단 6:10).

명절대목이 주일이니 장사를 안하고 주일을 지키면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 아침에 고관들과 등산을 가고 골프장에 가서 친교를 하면 출세할 것을 「알고도」 교회에 오고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가고 남시질을 가고 낮잠을 자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도」 우리는 교회에 온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드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간신들의 눈에 발각되어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간신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유를 알겠다. 예레미야 선지가 말한 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렘 17:5-9). 오늘 북한의 성도들이 그 살벌한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올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니엘서 9 장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또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에 자기 열조의 죄와 방백의 죄와 온 국민이 죄를 범했다고 하며 그 죄를 세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리셨으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범죄하였으며, 반역하였으며, 분명히 말하면서 지금 포로가 된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으레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누가 의인인가? 죄를 깨닫는 사람이 곧 의인이다.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다.

사랑하는 충청교회 성도들은 우리 겨레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양단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살길이 내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민족은 불합한 죄가 많다. 작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남이니 북이니 이런 말이 우리처럼 많은 민족도 없는 것 같다. 중국은 크기가 우리의 몇십배인가? 인구도 8억이 넘고 민족도 다종다양하고 언어만 30여종이나 되어 성경을 번역한 문자만도 16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도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우리야 한 민족이요, 한 말이요, 한 풍속이요, 갈라질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도 종종 지방 일이 고조되고 파벌이 생겨서 불목하는 일이 흔히 있다. 참 유감이다. 이제 나의 편견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하고 또 동포의 편견도 대신 회개해야겠다. 북한 김일성 집단의 죄도 대신 회개해야겠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던 것이다. 그결과 70년 후에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온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민족에게도 어서 속히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온의 길이 열리려면 회개하는 의인이 많이 일어나야겠다.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어서 시온의 길을 걸어보자.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합심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2월의 행사

- 2일/제3.4지구 구역장회의
- 3일/제5지구 구역장회의
- 5일/정기제직회, 남전·전사·산전 임원회 재정위원회, 지도자 양성부 제11기 수료식, 명예장로(윤두한) 추대식
- 10일/임시당회, 교회 철야기도회
- 12일/남전·전사·산전 월례회 출판위 자 분과월례회 여전도회임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 19일/여전도회월례회, 재정위, 해외선교실행 위원회 출판위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 23~26일/북한선교회 서울대회
- 26일/구역권찰회, 전도위원회
- 28일/정기당회

2월호 차례

- <권두언> 다니엘이 되어보자/주간..... 2
- <이달의 말씀> 참된 일꾼이 됩시다
/김창인 목사..... 4
- <이렇게 답한다> 물질과 세상일에
대한 바른 이해/김종택 목사..... 6
- <특집>
① 주일학교-1978년의 목표..... 7
② 당회장에게서 듣는 북한선교10
- <새성전건축설계 보고> 새성전대지의 현황분석12
- <쉽게 풀어 쓴 기독교교리①> 기독교 교리의
3대 강령/이성근 목사.....15
- <1200자 칼럼> 혈연관계/고제원 집사.....16
- <찬송가 감상①> 오 거룩한 머리에
/김중석 전도사.....16
- <도서정보> 1월중 구입한 도서17
- <책소개> 장년 새신자부 공과/조선근 장로.....17
- <특별기고> 한국교회 찬송가의 변천과정
/김하진 목사18
- <청년신앙수필>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김원호.....19
- <시편에서 읽는 주간의 만나>20
- <구역장노우트④> 당면한 업무 분담과
한계/백성룡 목사.....21
- <간증문> 나는 북경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해외선교회 제공.....22
- <해외에서 온 편지>.....23
- <교회소식>.....24
- <편집후기·기자석>.....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28

표지설명 : 주일학교 자부는 이번 겨울 모두가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겨울 계절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부 수양회의 한 장면 !

월간 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증현

증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참된 일꾼이 됩시다

성경/마태복음 10:1-15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관이요, 우리는 다너가는 나그네인 동시에, 세상은 일터요, 여러분과 저는 일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관 같은 일터에서 자기 일하다가 본향에 갈 때에는 행한 대로 보고서를 들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신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들도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충성하십시오.

1. 예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 네 사람, 농사짓는 농부 두 사람, 또 세리 한 사람, 그리고 기타 다섯 사람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렇게 의인도 없고, 다 죄악에 매물은 사람들도, 그렇게 유식하고 유능한 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무엇무엇 다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일을 하라” 하시며 일을 맡기십니다. 또 일을 맡기신 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만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는 나는 자격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도 말고, 나 같은 것을 부르시는 것을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면서 승리와 성공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격이 있고, 연약한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으면 험악한 세상을 밟고 승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간판이 좋은 사람보다는 겸손과 회개와 조심과 충성하기를 원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2. 택함 받은 일꾼의 태도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의 일할 위치와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

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고 하라”(5-7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등불빛이 가까운 데서 먼저 빛을 발하고 남으면 먼 데까지 비추는 것처럼, 너는 네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의 할 일에 충성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남의 일에 평론하지 말고 너 할 일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책임에 참 충실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어 고치고, 실수할까봐 늘 조심하면서 자기의 서고 앉을 자리를 분별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천국운동만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왔다 하라”(7절) 하셨습니다.

곧 천국운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최상의 운동입니다. 참 일꾼이 할 일은 지상운동이 아니고 천국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 합니다.

세째 천국운동의 방법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해야 됩니다. “...권능을 주시니라”(1절) 천국운동은 사람의 지식·계획·방법으로 안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번 만번 실패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모든 조건과 자격이 구비되기도 남았습니다. 그는 어느 장사 부럽지 않게 건강했습니다. 그는 고대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절할만큼 사상이 철저합니다. 또 그는 내 백성을 진저야겠다는 애국심이 불붙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모세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천국운동은 악마와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것인데 누가 악마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원자탄? 수소탄?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의 장난감입니다. 악마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권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3. 참된 일꾼의 사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지 말라..."(9-10절).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교육은 무엇으로 시킬까? 물론 생각할 만합니다만 그것만 해결하려다가 최악에 때가 물으면 안됩니다. 그것만 염려하다가 불의한 것에 손이 끌리면 안됩니다. 내 모든 염려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신한 일에 전진만 하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주십니다.

저를 키워 주신 이 기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시골교회의 영수(지금의 안수집사)로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하도 전도사가 되라고 해서 장사하던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담임해 갔더니 첫 달 사례금 8원(장사할 때 하루 번 것만 못함)이어서 "하나님이 8원 주시면 8원만큼 살자!" 하며 살았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도 굶기지 않을 테니, 염려 말고 가서 일해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에 맘을 흘리고 선한 일에 맘을 흘리면, 혹시 내가 일한 열매를 탄 사람이 빼앗아 먹으리라도 얼마 안 있다가 그보다 백배나 만배나 존귀한 상금을 붙여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이 생활문제에 마음이 끌려 불평만 하고 일을 안 한다면 벌써 낙제생입니다.

4. 참된 일꾼은 어떻게 교제(대인관계)를 해야 됩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11절)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공의에 서서 올바른 친구를 사귀시다. 잠언에 "많은 친구를 얻는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즉 친구를 함부로 사귀는 자는 멸망을 자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말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즉 친구를 바로 사귀면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가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좋은 친구는 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보다도 낫다는 말입니다. 교제를 조심하고 친구를 바로 사귀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일꾼이 됩니다.

둘째, 이해관계를 넘어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이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찰싹 달라붙고 손해가 날 때에는 발뺌척으로 차는 사람, 즉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꼭 원수가 될 사람입니다.

세째 고락을 같이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에는 함께하다가 괴로울 때에는 도망가는 친구가 아니라, 인내의 허리띠를 동이고 고생 속에서 함께 맘을 흔려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네째 생사문제를 초월하는 친구여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옳은 일꾼 노릇을 합니다.

5. 참된 일꾼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합당치 아니하면...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13, 14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물질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롯이란 사람은 돈을 따라 소돔 고모라에 갔읍니다 거기에서 양식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살다가 돈을 모았지마는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많은 재산 한푼도 못 건지고, 두 사위는 불에 타 죽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도망간 롯이 더러운 최악의 씨를 낳으니, 하나님의 원수된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드락·메삭·아벳느고가 풀뭇물에까지 들어갈때에 일초도 못되어 한줌의 재로 남아갈 것 같더니 그들은 도지사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 받은 다니엘이 이튿날 아침에는 뼈 한 개 찾을 수 없을 것 같더니, 더욱 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습니다.

옳고 옳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높은 곳도 휩휩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육지와 같이 갈라지니 쉽고,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이성같이 작은 성에도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너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바쳐야 됩니다.

일합시다! 새벽부터 일합시다. 맘과 눈물을 흘려 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합시다. 전도하는 일을 합시다. 돈으로 일합시다. 건강으로 일합시다. 지식으로 일합시다. 모든 것 바쳐 일을 합시다.

원컨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꾼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 이렇게 답한다 □

물질과 세상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할 일

김 종 택 목사

(부목사·장년부지도)

나는 그동안 점포 하나를 가지고 상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어 점포 하나를 더 내서 몹시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서울의 돈을 혼자 다 모으십니까? 그 썩어질 물질을 그만 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합시다.” 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 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 ② 물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인가?
- ③ 세상의 일은 썩어질 것이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①□...성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가난하고 불신자들은 다 부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이고, 둘째로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전도사업이나 구제사업·교육사업·교회당건축 등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욱 힘을 써서 물질적으로도 부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을 벌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다 제각기 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받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에는 점포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에는 세개 배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또 몇개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②□...돈(물질)은 악한 것인가? 이것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 또는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며 악도 아닙니다. 잘못 쓰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나, 우

리 성도들이 이것을 수중에 넣어서 바로 쓰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물질로써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음에게 복을 주실 때도 전에 가졌던 물질을 배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화는 아닙니다.

□③□...세상 일(돈버는 일)은 썩어질 것이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일(교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 역시 그렇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신자들이 세상일 즉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일(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만 하고 심방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어찌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서,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맡는 곳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해야 하나 또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잡한 거리 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중심하고 장사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방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로써 일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고, 그 반대로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들에서 농사를 짓고 집안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를 했다”고 하였고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同事)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고 심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보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새신자부(어린이·장년)···이성근 목사



1.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생활을 하자.
2. 새로 믿는 분들이므로 우선 믿어 구원을 얻는 도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실증으로 생활에 변화가 따라야 한다
3. 성경말씀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길인 줄 안다. 그리고 분반공부시간에 교사님들을 통하여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 지도하고 때때로 간증시간을 가져 자신의 신앙생활을 발표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므로 실증시키는 일이다.

4. 장년새신자부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어린이 새신자부는 유·초등부가 전도하는 일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일체감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일꾼을 키우는 주일학교의 모습들

■ 영아부정소영전도사

1. <주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요.

<표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창28:15>



2. 신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 청결된 마음, 애통하는 마음(마 5:3-12)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하며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것이다.
3. 다른 부와 마찬가지로 제철학교(연 2회)를 열어 어린 아기들에게 말씀을 심고 가꾸며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적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특강을 실시할 것이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장소문제이다. 장소가 없으므로 시간도 항상 쫓기고 교사들이 모일 기회가 적다. 물론 이 문제는 성전건축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

■ 유치부정연희전도사



1. <주제> 전국일꾼을 키우자.
<표어> 성령이 충만한 어린이로 키우자.

2. 지난 교육을 평가해 볼 때 어린이들이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죄가 무엇인지, 즉 지적인 면과 외지적인 면은 약하다고 볼수

없는데 비해 정적인 면이 약하다고 생각되어 영력을 좀 강화하여 어릴때 부터 균형잡힌 신앙인적자도 양

- 1978년의 총현주일학교의 목표들을.....○
○.....알아본다. 12부 주일학교 전체를 한.....○
○.....눈에 정리하여 보니 새로운 감이 많.....○
○.....이 있다. 설립 25주년을 맞는 우리교.....○
○.....회의 큰 목표인 「전국일꾼을 키우자」.....○
○.....라는 총주제에 각부 주일학교는 1978.....○
○.....년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것.....○
○.....을 보며 총현의 모든 식구는 무한한.....○
○.....관심과 이해로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설 문

1. 1978년 부의 주제 및 표어
2. 주제 표어 설정의 동기 및 이유
3. 주제 및 표어의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 및 구체적 사업(행사)계획은?
4.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육하려는데 있음.

3. 가. 기도면

- ① 연 6회 교사철야기도회
- ② 매주 예배전 교사 기도회
- ③ 교사는 매일 반학생과 유치부를 위한 기도를 한다.
- ④ 어린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지도하여 기도를 생활화 한다.
- ⑤ 학부모에게 기도협력을 받는다.

나. 예배면

- ① 예배전 찬송지도
- ② 설교말씀에 중점을 둔다.

다. 분반공부

- ① 분반공부시 생활지도만을 하던 것을 성경공부를 하므로 학생과 교사가 말씀에 접근하도록 한다.

유년부김영휘전도사

1. <주제> 천국일꾼을 키우자.
<표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2. 주제는 우리교회 주일학교의 총 주제로 선정했으며 표어는 학생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3. ①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웠다.
② 전체교사들에게 매주일 설교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직접 학생들과 접촉함으로써 생활지도(말씀에 입각한)를 하게 한다.

초등부김석원전도사



1. <주제> 천국일꾼을 키우자.
<교사표어> 모범적인 천국일꾼을 키우자
<학생표어> 모범적인 천국어린이로 자라자.

2.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사적이라는 말씀을 모범적이라는 말씀으로 대치했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범적 신앙으로 키우기를 원함.

기초는 말씀을 받고, 행동은 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② 믿는 자의 증가.

3. ① 말씀안에서 모범적인 천국어린이로 키운다. (어린이가 되자)

<실천> 성경읽기표를 배부하여 하루 세번씩(1장×3회) 매일 3장 읽힌다. 따라서 1년동안 교사및 아들은 신약 성경 3번 읽는다.

- ② 선교하면서 자라는 모범적인 천국 어린이로 키운다(어린이가 되자).

<실천> 국내전도: 주14장 23절(내집을 채우라)을 기초로 하며 78년 평균 출석을 400명을 목표로 한다.

국의선교: ㉠ 선교사를 위한기도 ㉡ 선교헌금 작성 ㉢ 선교사 지망을 위한 헌신고위 시킴.

- ③ 성전건축에서 모범적인 천국어린이로 키운다(어린이로 자라자)

<실천> ㉣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

㉤ 건축헌금 작성

4. 지도교역자의 지도목표 이념에 대해서 교사의 상호협조 및 이해를 통하여 아동에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

중등부윤형철전도사

1. <주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실천사항> 말씀을 배우는 중등부
말씀을 지키는 중등부
말씀을 전하는 중등부



2.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를 갖게 하며 학생들의 인격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장되어 지게하며 매일의 생활속에서 기독교학생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기독교학생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데 있다.

3. ① 주일, 토요일 성경공부
② 영혼의 매일양식(가정성경통신)
③ 전도훈련(기도회, 전도투각, 실습)
④ 소구름기도회, 성경연구회운영
⑤ 개인면담 지도

4. 없음

고등부이승근전도사

1. <주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표어>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닮보아 알지어다(시 34:8)

2.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

3. ①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

② 토요집회·주일집회의 효율적운영(간증)





③ 제철학교(동기·하기 수양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

4. 없음

■ 산업전도교육부김하진 목사



1.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 ① 열심히 배우자.
- ② 열심히 일하자.
- ③ 열심히 전하자.

2. 회원들을 직장전도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가 어떤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배우려 함.

3. ① 제철학교(동기 수양회),
- ② 성경퀴즈, 암송대회
- ③ 월2회 노방전도, 연 2회 철야기도회
- ④ 연 2회 전도훈련
- ⑤ 직장예배(순회)와 성경공부(주 1회)

■ 대학부정관일 목사



1. 전회원 제자화
2. 젊은 크리스찬은 많으나 주님께 헌신 할 훈련된 제자가 없는 현실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 말씀연구

1 차방안: 반장훈련(매주토요일 6-8시 30분)

교재: 리더쉽

2 차방안: 전 회원 성경공부 그룹화(평일)

4. ① 교재의 변경
- ② 제정의 파소책정

■ 청년부윤영탁 강도사



1. <주제>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전하자.

2. 1977년에는 「진리를 알자」 「진리를 행하자」라는 지도방침하에 말씀으로 장성한 것을 강조해 왔다. 금년에는 거룩한 생활을 근거로 직장에서 전도 할것에 치중

하려고 한다.

3. 직장전도세미나(정성구목사를 모시고 1월 30일)를 열었고 조직적으로 각 직장 중심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전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도제목이다.

■ 장년부김종택 목사



1.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자(히 4:2)

2. 말세를 만난 지금은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의 이단과 사실이 횡행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또 사실 그런 곳으로 매혹 되어 넘어가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믿고 또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정한 것이다

3.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리적인 면에서 여러 차례의 특강을 가지려 하며 특히 장년부로서는 처음인 여름계절학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4. ① 우리 교회의 장년부 시간이 타교회의 대예배 시간임으로 특강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고

② 한 장소를 타부서와 같이 사용하다보니 연세가 많으신 학생들이 거의 매번 밖에서 (특히 춥고 덥고 비가 오는 날에도) 10분 내지 15분씩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 가게 되니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고 또 장소가 협소하고 너무 복잡하다.

■ 노년부김재창 목사

1.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자 (딤후 2:4)

2.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하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를 배우는 겸허한 학생의 신분으로 성경을 계속 배워서 알게 하려 한다.

3. ① 성경공부(강해)

② 훌륭한 조상이 되는 길.

③ 효도 받는 비결

④ 성도의 천국(간식과 대화)

⑤ 천국의 소망과 준비

4. 장소협소



100만의 기도 동지가 필요

끝없는 가능—북한선교

「태양은 북한과 남한에 똑 같이 비추인다」는 생각이 북한 선교에 눈을 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김창인 목사님은 지난 해 9월 13일에 출국하시어 미국, 캐나다, 서독, 노르웨이, 이집트 등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북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시고 구랍 12월 17일에 귀국하셨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불케 하는 이번의 짧은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북한선교회 이사장이시기도 한 당회장 김 목사님을 월간충현 간사진이 찾아 뵈으며 여행담을 곁하여 직접 들어 본다.

<편집자>

■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무슨 계기라도 있으셨습니까?

—어머니는 공산당들에게 피살 되시고 형님 한분은 납치를 당하시고 나는 1948년 12월 3일에 남한으로 넘어 왔다. 월남 이후 북한 땅에 돌아가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철의 장막으로 가리운 북한에는 전도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염두도 못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북한과 남한에 똑 같이 비추시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 이라고 버려 두어야만 되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필경 세계 어느 곳에는 공산권에 전도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수년 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하였다. 드디어는 작년 5월에 「북한선교회」를 조직하고 초대이사장으로 있게 되었다. 추측한대로 세계 여행을 통해 대공산권 선교 기관이 여럿 있으며 이들과 제휴하면 북한 선교의 길이 열릴 것만 같은 확신이 생긴다.

“그는 우리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선교사업에 효과적으로 도와줄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으나 할수있는 한 우리들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며 내가 더 관심 갖는 것은 경제문제보다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독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한후 독일 남단 뤼빙겐 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베이엘하우스(Beyerhouse)박사를 찾아 선교에 관한 제문제를 의논하였다. 여기서 「북한선교회」의 계획 사업을 설명하고 선교사 훈련과 10만명의 기도 동지 획득 및 선교 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베이엘하우스 교수는 한국 교회의 실상과 중현교회의 현황등을 묻고 도움이 될 선교 단체 두 곳을 소개해 준 후 뜨거운 기도를 해주었다.

다음에는 OMF 선교부로부터 볼프강 메르데스(Wolfgang Merdes) 목사를 방문하였다. 이 분은 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신 적이 있었으며 한국을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였다. 그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과 협조를 얻기 위해 왔다고 하였더니 그는 대공산권 전도 전략을 설명해 주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공산권 안의 생활 상태를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저들의 최근 상황을 파악하고, 대학 교수, 기술자 같은 전문직의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며, 라디오를 통해 성경을 천천히 읽음으로써 저편에서 성경 말씀을 받아 쓸 수 있게 한다. 또 성경을 「마이크로프린트」하여 확대경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OMF와 우리 「북한선교회」가 손잡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서 메르데스 목사는 즉석에서 크게 환영해 주었다. 한국에도 OMF선교사들이 몇 명 와 있다.

다음 주에는 동구권 공산국가에 선교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Christliche Ostmission e.v.를 방문하여 국제 총무인 랑게씨(Mr. Lange)를 만났다. 미국에 본부가 있다는 이 선교회에서는 공산국가에 14개 국어로 방송전도를 하며 동구라파 여러 나라와 중공, 캄보디아 등지에 문서 선교를 하고 감옥에 있는 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구제물을 전달하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부터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찾아 주어 필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아

나면 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으나 할 수 있는 한 우리들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며 내가 더 관심 갖는 것은 경제문제보다는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미국에서 차기 선교회 회장과 만나 의논하기로 하고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 달라는 그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후 선교회관을 떠났다.

■ 독일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코펜하겐을 거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경유해서 트론드하임으로 한센(Hansen) 양을 찾아갔다. 그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주소문 끝에 그리고 눈더미 속을 헤쳐가며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 그의 집을 찾아 상봉을 하였는데 그 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저녁을 김치, 짬두기, 콩치 등으로 맛있게 먹었다. 이튿날엔 노르웨이 내국 선교부를 찾아가 그 곳 기관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에게 나의 자라난 배경과 북한 선교의 이유와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 잡지는 북한 대사관에까지 보내진다고 한다. 기념 촬영을 한 후 나오는 길에 1030년에 세워진 성전을 찾아 보았다. 9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은 아직도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몇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증축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다 는 것이다.

오후에 다시 한센양 집으로 돌아왔다 이종운 목사(김복사님의 구라와 여행시에 제속 수행하셨음—편집자 주)의 제안으로 Helland Hansen양을 한명숙집사님으로 한국명을 지어주었더니 몹시 기뻐하였다. 이날 밤은 나의 회갑연(?)으로 축하를 하였다. 밥, 시래기국 그리고 김치와 짬두기가 한국의 자개 밥상 위에 차려졌고 촛불이 밝혀졌다. 우리는 다 같이 감사기도를 드린 후 생일축가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생의 모든 유익은 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②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③ 후손에게는 복이 되고 ④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만 된다는 나의 인생관을 말하고 내 회갑잔치에 돈을 쓰기 보다는 그날을 회회 여행을 떠난 것이라 말하였다. 한집사는 사과 한 알을 주며 그 위에 십자가를 그린(노르웨이 국기)기를 꿇고 앞으로 김복사님께서 사과 같이 둥근 지구를 누비며 십자가 복음을 계속 넓게 전해 주실 것과 하얀 꽃 한송이를 드리면서 청초하게 여생이 아름답기를 원했으며, 쫄코렛 한 상자를 주면서 장수를 축복했다.

■ 이집트에도 가셨는지요?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서 여러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카이로에 갔는데 랏셋 대학 학장실에서 애급 나일 Synod회장 엘리야스 마칸 목사를 비롯 몇몇 지도자들과 이야기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두 나라 교회가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급 신학생을 매년 1명씩 한국에 유학시키는데 협력할 것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애급 총회장은 애급 교회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교육, 출판 사업에 협조해 주시고 유자격 신학 교수를

“문제는 우리의 자세다. 전세계에서 100만명이 하루에 두번씩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한마디로 끝없는 가능—이것이 북한 선교다”

파송해달라 하였다.

애급 농촌 풍경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았다.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미개한 원시인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독일에서 만나 약속한대로 랑게씨를 다시 만났다. 여기서 그 선교부의 지도자들에게 ① 기도 동지 100만 명 확보 ② 마이크로 바이블 인쇄 및 전달 ③ 남한 성도들의 기도 협조와 신앙 자성을 위해 공산권 교회 현황을 소개하는 책자 추천 ④ 선교사 훈련 ⑤ 방송 전도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선교회 회장은 경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북한 선교를 구체화 시키 주겠으며 재정 지원 및 남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도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해 주었다.

■ 이처럼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는데 앞으로 「북한 선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북한 선교회」 주관으로 서울대성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구, 부산등지에서도 대성회를 열어 범교단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

■ 끝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쇄 사회인 북한에 우리 남한의 제한된 영토안에서만 복음을 들여보낼 길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직선으로 안되면 곡선의 길이 있듯 세계적인 선교 기관과 손을 잡고 협조를 얻으면 의외로 가능한 길이 있으리라는게 우리의 확신이다. 따라서 해외의 여러 선교 기관과 계속 유대를 강화해서 나가면 조금씩 복음의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갈 것을 굳게 믿는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다. 전세계에서 100만명이 하루에 두번씩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한마디로 끝없는 가능—이것이 북한 선교이다.

새성전 대지의 현황 분석

- 금년부터 시작될 새성전 건축의 설계에서 시공되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되기까지의 모든면을 「길간 총현」지를 통하여 여러 교우님들께 알려드리려는.....○
 ○.....바 이번호에는 설계의 서론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차 례>

- I. 서 론
- II. 대지의 현황
 1. 물리적 분석
 2. 기능적 분석
- III. 기본계획
- IV. 세부계획
- V. 시공계획

I. 서 론

1. 설계개요

설계대상: 총현교회 새 성전 건축설계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1대지
 설계규모: 총면적 6067평

2. 설계의 기본전제

- 가. 교회의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설계
- 나. 교인의 증원을 고려하여 설계
- 다. 1인 1교인 이상의 전도
- 라. 필요로 하는 제조건의 충족을 위한 설계
- 마. 관리에 편리한 방향으로 설계
- 바. 과학화에 뒤따른 제문제를 해결한 설계
- 사. 보수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전당으로서의 연 구, 계획, 선구적 실천의 전당을 위한 설계

3. 설계의 목표

가.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

천국일꾼을 키우려는 교회의 기능이 그동안의 예배 장소의 협소와 교육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에 많은 차질을 빚어온 바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설과 환경에서 참다운 교육을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나.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위주의 생활을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넓은 예배장소와 말씀연구 및 파수하는 시설을 확충하여 말씀파수의 기능을 다하게 해 준다.

다.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

망팔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민족복음화와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계 전역에 선교사 파송을 위해 선교 센터를 마련하여 선교훈련과 선교연구와 선교사 양성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4. 설계의 기준

가.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의 성전

성전본당은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채래식 고딕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외부는 석조로 내부는 현대식 장치로 하며 크기의 규모는 5000~6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현대식 건물의 교육관과 선교센터

교인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육관과 선교 센터는 현대식으로 건축할 것이며 특히 교육관은 주교 출석현황과 100년 대제를 내다보아 추계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분할과 배치를 한다.

다. 코이노니아를 위한 휴식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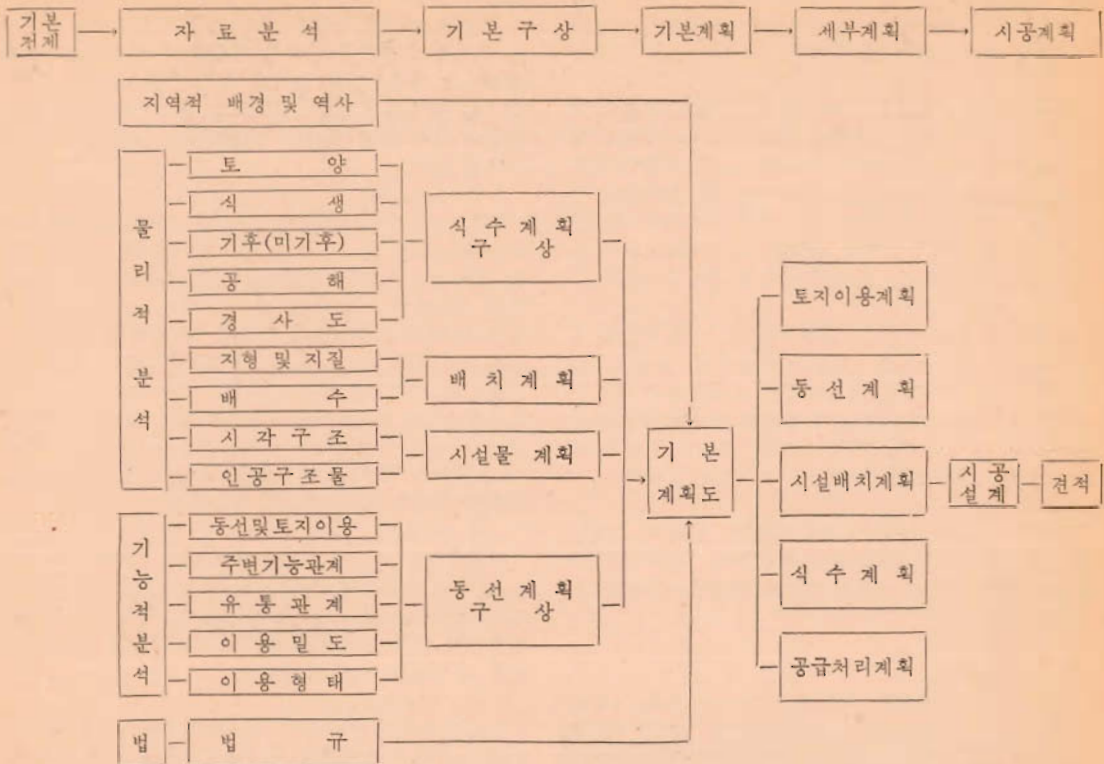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휴식공간은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여 세분 및 분산화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일을 주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환경을 조성 해 준다.

5. 설계의 순서

설계의 순서는 먼저 설계목표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규범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設計의 기본전제이다. 기본전제가 설정되면 설계대상지역과 이에 관련된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방향이나 설정되는 것이 기본계획의 근거가 된다.

자료분석은 대지자체가 가지는 잠재성분석인 물리적 분석과 인간과 대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기능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정적인 분석으로서의 대지분석은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생물적 생태적인 특성을 구명하고 개발의 잠재능력을 발견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적정관계수립에 도움을 주게 되며 기능분석은 인간과 대지 상호간의 관련성 상호 작용을 주로 인간의 행태 체제 제도 등을 통하여 동태적인 이용 형태의 변천과정과 정적인 현상의 유형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미래 기능 예측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밖에도 지역적 배경 및 역사, 그리고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대상지내의 동선 식재 시설물 및 배치계획을 구상 종합하여 기본계획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세부설계 및 시공도면을 완성하고자 한다. 세부설계는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 배치계획 식수계획 공급처리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설계의 순서



II. 대지의 현황

1. 물리적분석

가. 지형 및 지질

계획대지 및 주변의 지형은 해발 37~48m의 등고상태를 보여 주는 산마루에 위치한 자연지형으로서 남쪽으로는 20m 전방에 영동에서 잠실까지 연결되는 50m 도로가 이어지며 100m 전방에 유스호스텔(높이 14층)의 건물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파트군, 서쪽으로는 100m 전방에 2.5m 도로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잠실쪽으로 흰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사방에는 6m 도로로 구획되어 있다. 대지내에는 45m와 48m의 봉우리가 말안장형으로 45m 높이의 봉우리는 남동쪽 45m 봉우리는 북쪽으로 높여 있고 동쪽과 북동쪽은 37m까지 내려가는 지형으로 지형상 특징은 없는 상태이다.

지질은 연암 내지 고사점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높은 지역은 1m 이상 깊이에 부식암과 경암이 낮은 지역은 2m 이상의 깊이에 부식암과 경암이 노출되는 지질이다.

나. 기후조건

1) 개관

기후는 남산을 북쪽으로 끼고 있는 서울 지방의 기후이다. 서울 지방의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심한 더위와 강우를 보이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대륙성 기후에 속하나 간혹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1961년~1973년까지의 제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년평

균기는 11.5°C 최고기는 33°C 최저기는 -13.7°C 강수량 1472.3mm 년평균풍속 2.5m/sec 최대풍속 14.4m/sec 해면년평균기압 1016mb 년평균상대습도 70% 년평균일조시간 2,065시간이다. 주풍향은 봄여름은 서남서풍 남서풍이며 겨울은 서북서풍, 서풍이다. 서리는 10월 하순경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 초순경까지 보이며 눈은 11월중순에서 익년 3월하순까지 계속되며 결빙기간은 11월초순에서 4월초순까지 된다.

2) 미기후

미기후는 지상 1~2m 부근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활동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범위로 인간의 활동 및 그 행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기후는 인위적으로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며 특히 식생을 이용하여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기후를 특징짓는 것은 지표 상태와 일조나 바람 같은 일반기상조건이다. 그러나 미기후가 성립되는 조건은 지면 또는 지표의 피복이며 그러한 표면에 있어서의 열수지가 미기후 성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① 열수지

나출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된다. 이러한 일교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표에 지피식생을 조성하고 상방으로는 수관목을 형성하여 줄으로 해서 낮동안의 지표에 도달하여 지중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감소시키고 밤동안의 복사현상에서 열량의 확산을 수관층으로 보지하여 줄으로 일교차를 완화시켜 포근한 정주환경을 구성하게 한다.

② 바람

■ 새성전 건축설계 보고 ■

풍속은 지표근처에서는 대개 지표의 상태 지표 수목 등의 장애물로 약해진다. 이러한 지표나 수목의 방풍효과를 이용하여 한강변의 찬기류를 몰아치는 동계의 북서풍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 경사도 분석

계획대지를 포함하는 주위경사는 대개의 완만한 경사로 대지의 북쪽과 남동쪽에 구릉이 있다. 비슷한 경사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구릉의 경사도를 이용한 건물 배치와 조화를 이룰 녹지조성과 보행 및 휴식공간 등 동적 정적 경관성을 사면의 변화로서 강조하며 계획할 수 있다. 동쪽과 북동쪽의 사면을 따라내려오면서 트이는 경사지의 계획은 전망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라. 토양

대지의 토양은 식양질 내지 사양질의 적황색토 및 암쇄토로서 저구릉지의 지형의 토양이며 유효토심은 1m 내외이며 비옥도는 낮은편이며 토양반응은 강산~약산이다. 토성, 토층의 깊이 표토의 유무와 색 산도 등은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토양의 상태에 따라 대지의 식수계획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다.

마. 식생

대지내의 기존식생은 하나도 없으며 주택지 조성으로 주변에도 역시 식생관계는 전무하다. 단지 지형과 토양에 의해 식생이 곤란한 지역의 표토조성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바. 공해

1) 소음 공해

도시소음은 시가지의 차를 및 건축시의 소음, 교외

의 열차, 그리고 항공기등의 각종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합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주로 각종 차륜소음에 기인하는 것이며 교통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통량보다는 차체소음의 크기에 따라 교통소음이 좌우된다. 본 대지는 사방에 6m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바 교통량은 많지 않을 것이나 차체소음이 조금은 문제가 되리라 본다.

2) 대기오염

차륜의 배기가스에는 O, CO₂, CO, NO₂, NH₃, HCHO, SO₂, 분진등이 있다. 시내 주간선도로변의 공기오염도를 보면 SO₂가스의 평균농도는 0.24ppm로서 이것은 인간 유해한계 0.2ppm을 넘는 것이다. 그리고 분진은 4.65mppef로서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도로폭과 대기오염은 큰 관계가 있어 도로폭이 좁을수록 고농도를 이루고 있다. 같은 조건하에서 100m 도로폭에서는 0.2ppm을 유지하였으나 30m도로폭에서는 0.16ppm~0.98ppm까지 상승하였다. 본대지의 경우는 도로폭이 6m이나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 배수

하부구조는 시(市)계획에 따라 연결시키며 자연배수는 경관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지형이 구릉이므로 문제성은 없다. 주로 안장형의 구릉으로 가운데 안장형의 계곡으로 배수되어 6m도로에까지 흘러 도로 밑의 배수로를 따라 처리된다.

아. 인공구조물

지상구조물은 대지내의 시(市)계획에 의한 전선과 전봇대 뿐이며 주변에는 주거지역으로서 단독주택들이 정돈되어 있다.

자. 시각구조

거의 평탄한 대지에 주변의 유사한 단독주택군들이 거의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경관적 특성은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 단지 내부에서는 북쪽과 남동쪽의 구릉에서 원경의 전망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서쪽의 잠실쪽의 트이는 경관은 무궁무진한 관계로 외부에서의 전망의 축점이 되는 지역이다. 주변지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대지는 주변지역에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의 상징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용이할 것이다. 시각구조 자체는 거의 일정한 모형이고 사방에 허술한 감을 주지만 시각적인 특성을 살려 경관처리에 힘쓰면 매우 쾌적한 시각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기사를 모집합니다 ■

월간 총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기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자격 :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
2. 제출서류 : 이력서 1매
3. 제출처 : 월간총현 편집실
4. 제출일시 : 1978년 3월 26일까지



기독교 교리의 3대 강령

이 성 근 목사

(부목사·출판위원회지도)

기독교의 교리는 알기 어려운 것인가?

기독교에 대하여 들어봐도 알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알기 어려운 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곧 깨달을 수 있는 교리로서 오직 한 길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즉 구원의 교리인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한번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알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대개 그 듣는 법이 바르지 못하든지 혹 설명하는 법이 좋지 못한 까닭일 뿐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함부로 어려운 학설을 끌어 붙여 깨닫기 쉬운 구원의 교리를 듣기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깨닫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다 교리의 한 부분씩 설명하고 그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님으로 마치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머리를 말하고 어떤 때에는 손을 말하며 어떤 때에는 발을 말하는 것과 같이 교리의 한 부분씩 나누어 설명함으로 처음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알 수 없다는 비난은 공인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음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듣는 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대로 듣기 어려운 설명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피하고 교리 자체를 종합하여 설명하므로 누구든지 한 번 보고 곧 깨닫게 하려고 「요약교리」라는 글을 충현지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의 깊은 뜻을 설명하거나 기록할 수는 없겠으나 마치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교리 전체를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강령

기독교를 믿는데 있어서 먼저 알 것은 요점 셋이 있습니다.

1.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2. 사람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사실과
3. 죄인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와 구원 이 세가지는 기독교의 삼대 강령입니다. 가령, 그물의 버리를 들면 그 고리가 몇천이 있을지라도 모든 고리가 다 붙어서 놀리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교훈과 교리가 많이 있으나 먼저 이 세가지 강령을 잘 깨달으면 그 나머지는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강령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각 부분의 설명을 많이 들을지라도 이것

으로는 도저히 기독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1 장 참 하나님

기독교의 교리에서 첫째로 취급할 강령은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이므로 먼저 이 일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서양에서 수입한 신인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여도 곧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외국 것을 수입하는 오늘날이지만 그러나 서양신까지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은 어떻든지 한국 사람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숭배하여 온 토종신만을 숭배하여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외국의 서양신을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라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신이 있으므로 서양의 신은 믿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혹 의미 있게 들릴는지 모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나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하나님이고 저것은 미국의 하나님이라 하여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각 나라에 각각 다른 하나님이 있어 그 나라를 지키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어 놓은 경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적은 분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홀로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서양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므로 지금과 같이 발전된 것입니다. 어떻하든지 한국에는 한국의 하나님이 계시며 특별히 한국만 지으시고 한국만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참 하나님 밖에는 천상천하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늘에 두 해가 없고 세계를 비치는 태양은 다만 하나 뿐입니다. 태양에는 동양과 서양의 분별이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의 태양은 원형인데 미국의 태양은 삼각형이라는 부자연스러운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계에는 두 하나님이 없고 만국을 지키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이 한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도 지키시고 중국도 지키시며 미국도 지키시고 그의 세계 만국을 다 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특별한 신들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곧 미신인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1700년 2월 21일

혈연 관계

고 제 원

며칠 전 구치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겨 난생 처음으로 갔었다. 먼저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놀랐으며 또 죄수의 번호가 5000번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연히 면회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조그마한 방에 가운데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두점의 유리창과 창살 뿔이 울리면 양쪽에서 각각 면회자와 죄수가 문을 열고 들어 간다. 그들은 들어서는 순간 눈물의 상연을 하고 있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별다른 세계에 처해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말문이 막히고 눈물의 대화만이 서로를 이해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 눈물이야말로 기쁨과 슬픔과 억울함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같은 값진 눈물은 남남의 관계에서는 흘릴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바로 혈연관계가 있기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일 것이다. 창 하나로 분리된 세계는 자유와 부자유의 세계를 대조적으로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것이 눈물을 흘리게 한 사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죄인과 자유인! 이것은 비단 구치소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닐 것이다. 법적 죄를 짓고 자유함이 없는데 하물며 영적 죄를 짓고 어찌 자유할 수 있을까? 많은 면회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현실에만 얽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웠다. 바로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형무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듯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죽어가는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구치소에 감금될 죄수들을 위해 방관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들을 위해 값 있는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는가? 법의 구치소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나 영적 구치소에서는 자유의 기회를 가질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 무서운 구치소에 들어감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혈연관계를 인식하여 사랑의 안내자가 되어야겠다. “한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 주위의 잃어버린 생명을 먼저 찾아가서 올바른 구원에 동참시킬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나와 이웃과의 혈연관계와 나와 주님과와의 혈연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키는 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금년에도 이웃과 북한동포와 민족과 세계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우리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찬송가 감상 ①

오 거룩한 머리에 (새 164장)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섬가대 지휘>

미끄러운 단상 위로 몽당발을 빼놓으며 부인의 부축을 받아 올라선 노(老) 장로(長老)는 몸을 돌려 모인 회중을 향하여 똑바르 섰다. 번뜩거리는 안경 속에 시력을 거의 잃은 두눈이 까맣기만 하다. 회중석에 앉은 그와 모양이 비슷한 3천여 신도들의 얼굴도 장로의 얼굴로 향하여 졌다. 이윽고 음성하진 하지만 정성스런 반주가 구부러진 손가락을 통해 연주되었고 장로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돌리워졌다.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 숙이셨네」

싸늘한 공간을 뚫고, 그 소멸되어가는 육체를 통하여 참으로 짧은 오일이 터져 나왔다. 높고 병으로 일그러진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울려나온 한마디 한음절은 그의 한 많은 고뇌와 슬픔을 단숨에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로 눈 앞에 보게 해주는 듯 했다.

「하늘의 존귀 영광, 주 다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 고난 당하셨네」

심장 저 깊숙히 터져 오르는 소리가 때로는 신음하듯, 하소연하듯, 끊어질듯 하다가는 이어 화산이 폭발하듯 뜨거움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모습과 그의 찬송을 들으며 맘속 깊이 감동되어 눈하나 깜짝할 수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러며 “아, 하나님 하나님이어 이것이 바로 노래군요, 이것이 바로 찬송이군요!”라고 거듭 맘속에 뇌이였다. 노(老)장로님은 몸이 나병들어 고생을 당하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넓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성도 전문적인 아니나 잘 담겨 있었고 성량도 충분히 기운차 있었다. 지금도 음악공부를 하며 찬송시도 자작하고 있다 했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가장 큰 치욕일 동시에 가장 큰 성공임과 같이 이 수난의 찬송을 노장로는 인생으로는 다할 수 없는 영욕(榮辱)의 교차점에서 부름으로서 가장 훌륭한 찬송을 했다고 믿는다.

이 찬송가사는 베르나르드가 라틴어로 쓴 것을(12세기) 독일 목사파울 게르하르트가 독일하였고 이것을 J.W.알렉산더가 영역(1830년)한 것을 국역하여 우리 새 164장에 실었다. 곡조는 한스왓슬러(1601년)의 선율에 잘 아는 바하가 화성을 붙여(1729) 그의 마태수난곡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를 수난찬송(Passion Chorale)이라 부른다. 일설에는 원작이 베르나르드이기 보다는 베르나르드에게 바쳐진 노래라는 주장도 있는 모양으로 새 찬송가 뒷머리에는 그렇게 적어 놓았다. 모르나르드는 12세기 기독교의 성자로 존경받던 인물로 클레르보 수도원의 창설자이며 제 2차 십자군 운동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찬송이란 모름지기 느끼되 통절히 느끼며, 부르되 절실히 부를때 어찌 감동되지 않을 수 있으랴!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구입한 책을 소개합니다(책명/저자(원자)/출판사).

1월중 구입한 도서

1. 사전 및 참고서류

- 가. 문장대백과, 이여형저, 삼중당, 1507p.
- 나. 원색과학대사전(8권) : 학원사
- 다. 세계명언대사전 : 양주동저, 미조사, 1258p
- 라. 세계철학대사전 : 성균서관, 1337p

2. 한국교회사(인물)

- 가. 한국교회인물사(7권):박용규저, 선교문교출판사
- 나. 안악산골(김익두목사전기) : 박용규저, 혜성문화사, 234p

3. 이단종교

- 가. 여호와의 증인 비판 : 메쯔저저(정정숙역), 한국성서협회, 55p

4. 기독교윤리

- 가. 말세와점성술 : 누르베르겐레느저(권명달역), 보이스사 234p.
- 나. 죽음후 5분 : 윌리엄저(문영탁, 정영선, 전인철공역), 새순출판사 214p.
-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 부릿저 고든저(홍정식역), 새순출판사 289p.
- 라. 사슴이 시냇물 사모함같이 : 로이드 존즈(유영기역), 새순출판사 227p.

5. 교회정치

- 가. 교회제직교본 : 박병진저, 성광문화사, 183p.

6. 목회학 및 설교학

- 가. 목회핸드북 : 조동진저, 크리스찬헤탈드, 458p.
- 나. 한경적목사설교전집(12권), 한경적저 장로회총회교육부.

<도서실 안내>

- 도서열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 도서대출 : 폐관 1시간 전까지 (교사에 한함)
- 도서실 소식
 - ① 율형철 전도사(중등부 지도)가 종신 연구원출임을 기념하여 이상근박사 주석(12권)과 헨드릭슨 주석(7권)을 기증하였다.
 - ② 홍성구 선생(초등부 교사)이 「꿈의 해석」(프로이트 저)의 양서 4권을 기증하였다.

<도서실 제공>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
.....김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
.....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
.....탔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
.....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같은 캠페.....
.....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충현교회
교육위원회가 엮은

잘 새신자부 공과

4·6판/214면/반양장/600원

충 현 출 판 사 발 행

오늘날 복음전도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어 수다한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교회의 큰 목표로 혹은 정구사업의 한 부분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인도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아 교회에 등록케 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교회가 전도하여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를 참신자가 되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해 동안 교회에 다녀가는 사람이 많지만 다 결실을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전도받은 수많은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이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그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교회가 그들을 잘 가르치는 데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한 본 교회에서는 자료를 수집, 많은 연구와 실지로 교육을 하는 중에 교안을 다시 정리, 얼마 전에 책으로 내놓았다. 새신자부를 직접으로 담당하신 교역자들이 공동집필한 것이기에, 이론과 실제 면에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 책의 제 1부는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① 믿음의 시작 ② 믿음의 대상 ③ 믿음의 성장 ④ 교회생활 ⑤ 헌신생활 ⑥ 승리의 생활로, 다시 각과로 나누어 요령있게 설명했고, 제 2부는 교무 및 서무 행정의 실제, 그리고 제 3부는 교사의 교양과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엮었다.

이 책은 새신자부 교재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일학교 교사나 지도급에 있는 성도는 물론 먼저 복음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신자면 누구든 다 읽어야 할 책인 것 같다. 새신자 인도에 자신감을 안겨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조 선 근 장로

<월간충현편집위원>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찬송가 통일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17개교단이 초교파적으로 조직한 한국 찬송가통일위원회가 이 작업에 착수 올해 가을쯤이면 통일된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때를 맞추어 우리교회 성가부 지도로 수고하시는 김하진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찬송가 변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찬송가의 변모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하여 주셨다.

|| || || ||
특별기고

한국교회 찬송가의 변천과정



김 하 진 목사

<부목사·성가부 지도>

한국교회 발전과 더불어 교회음악 분야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한국교회 음악의 대표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보는 찬송가의 변천과정만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초창기 한국교회 찬송가

최초의 찬송가는 1892년 감리교의 존스(G.H. Jones)와 아펜젤라(H.D. Appenzeller)목사가 공동 편찬한「찬미가」일 것이다. 그러나 언더우드(H.G. Underwood) 선교사에 의하여 2년후인 1894년 펴낸「찬양가」(117장으로 되어 있음)가 규모를 갖춘 것으로서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찬양가」는 그 당시 감리교와 협의없이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초창기부터 찬송가를 하나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씨가 된 것이다. 그 후에 나온 것이 1900년 침례교에서 펴낸「복음찬미」이다. 그런데 이 찬송가들은 다 복음의 주제를 총망라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성탄과 같은 절기에 쓰일 노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찬송가들이 거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사 표현에 있어서도 영어에서 보다는 중국어에서 대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시적으로나 표현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임스·게일(James Gale)은 1895년「찬양가」나「찬미가」가 곡이나 가사에 있어 한국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비평하면서 표현상 잘못된 점을 들어 지적했던 것이다.

그 후 1905년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보호조약으로 나라가 강탈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비통에 젖어 있었다. 이 때 감리교의「찬미가」가 윤치호 역술, 김상만 발행으로 제 1권이 나왔고, 1908년 제 2권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애국송이었으며 황제송도 여럿 들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도 문서상으로는 여기에 처음 실려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찬송가일 것이나, 당시 나라 형편으로 보아 민족정신, 내지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치중했다는 것이 순수한 찬송가로서는 흠이 다 하겠다.

2. 장·감 연합 찬송가 편찬

이것은 1908년 장·감 연합으로 사용할 266장으로 된「찬송가」가 예수교서회발행으로 나오게 되어「연합사업」의 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때 나온 찬송가에는 대개 오늘날 우리들이 잘 부르는 곡조나 가사가 많이 들어있었다. 현재의 찬송가는 주로 이 찬송가를 그대로 받아드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당시 벌써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 5편(10~14장)이나 실려 있다는 점이다.

3. 신정 찬송가와 신편 찬송가

예수교 연합공의회는 1924년 첫 번째 사업으로「신정찬송가」의 발간을 결의한 후, 그해 편집을 끝냈으나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그 후 재편집을 하여 1931년 예수교서회 발행으로 출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총회와 협의없이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장로교 총회가 사용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교 연합공의회는 같은 해 실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속히 찬송가를 개정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래서 1933년 총회에서 찬송가 개정 편찬위원, 14명을 장로교 감리교 양 교단에서 동수로 선정하여 5년 내에 출판키로 했으나, 장로교 총회는 찬송가는 장로교 총회 종교 교육부에 맡겨 더욱 잘 편찬하도록 가결하고 다음해인 1934년 6월「신편 찬송가」400장을 발행하게 되었다.

4. 해방 이후의 찬송가

해방 이후 1946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교단은 찬송가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결실되어 1949년 586장으로 된「합동찬송가」를 발행함으로 우리 교회사상 모든 교파가 하나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0년도 채 못되어 1957년 장로교에서 번역 영감의 문제 등으로 찬송가의 수정을 말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파에서는 옛「신편찬송가」를 그대로 쓰는 등 다시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쓰라린 해였던 1959년 장로교가 합동, 통합으로 양분 됨으로 인하여 본 교단인 합동파에서는 고려파와 1960년 두 총회가 합동하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새찬송가」의 편집을 결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2년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671장으로 된, 「새찬송가」를 내어 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 「새찬송가」는 「신원 찬송가」를 기초로 하였으며 구미 각국 찬송가에서 우수한 것을 새로이 선곡하여 원작에서 직접 번역하는 원칙을 가지고 편찬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인의 시작(詩作)과 곡(曲)으로 된 찬송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에는 한 곡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교, 기장, 예장(통합측), 성결교에서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1957년 「합동찬송가」 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1963년에 개편 작업에 착수 한국인 작사, 작곡 27편을 포함한 600장의 「개편찬송가」를 1967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주로 보수교단측에서 사용하는 ① 새찬송가를 비롯하여 ② 합동찬송가 ③ 개편찬송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찬송가들이 새로 편찬할 때마다 그 가사의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 똑 같은 곡인데도 가사가 틀리고 장수가 바뀌어 있어 연합적인 집회를 가질 때나 선교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성도들은 불평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바라기는 지금 초교파적으로 찬송가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하루 속히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찬송가가 나오기를 온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음악, 특히 찬송가의 발자취는 한국교회사의 변천 과정과 같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찬송가의 개편이 있을 때마다 뚜렷한 발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교회음악의 발전이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독자의 글 ■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김 원 호

<유년부 교사>

한해가 갔고 새해가 왔다. 세모의 들렸던 분위기로 떠들석 했던 연말년시의 시끄러움도 우리의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 모든 것이 조금은 세월이 흐른 것을 시인하듯 말 없이 잠잠하기만 하다.

매년 새해를 맞게 되면 생기는 이야기지만 분주하게 1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해는 작년과는 달리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며 결심해 본다.

물론 작년 이맘때 하던 버릇이 다시 재발하여 또 다시 많은 계획과 번거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외면한 채 무작정생각해내고 내어놓아 짐을 져 놓는지도 모른다. 믿어야 본전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듯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일본일초의 앞날을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일년 365일의 일을 예측하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현대 지성인들의 불안과 초조와 괴로운 자기네의 일생(一生)을 보장해 주고, 아시고 간섭해 주시는 절대자와의 단절 속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도 실인은 아니리라.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대해 충분하고 철저하게 비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심는대로 거두는 세상 진리대로 풍랑 맞은 돛배처럼 좌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실이요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보장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까지 아울러 주신 놀랍고 신기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전에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이 우주세계와는 별개의 높은 보좌를 가지고 계시면서 세상을 꼼짝이 사랑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택한 자들의 모든 일에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간섭 내지는 보호·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발전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인가! 이제 '78년도를 맞은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세우는 진부한 계획보다 이런 축복 안에 사는 신앙인의 긍지를 지켜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며 사는 우리가 된다면 무엇을 바라랴.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28:1-9

악인의 행사와 그 결과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①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의인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1절) 그리고 의인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16절) 그리고 자기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서까지 기도할 여유가 있습니다. (도망가면서까지) 지도자는 그 백성을 위하여 계속합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종의 밥은 그만 두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8-9절)

②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지만, 의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1절)

③ 악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을 잊어 버림으로 감사가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5절)

④ 악인은 이중인격자 노릇을 하지만 의인은 한결같습니다.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3절)

⑤ 악인은 악을 행하기에 노력하다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고야 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참으시나 필경은 심판하십니다.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소서”(4절)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위 멸며 조심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은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시편 29:1

권능 있는 자의 경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가 권세를 잡고 잘사는 일이 동으로부터 온복도 아니요 서로부터 온 권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스스로 교만하여 함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자기보다 악한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목적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안물리고 스스로 그 영광을 유린 하였읍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9:3-9

뇌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격으심이어……』

백향목은 잘 자라고 아름답고 향기로울 뿐 아니라 상목수가 되어서 나무 중에는 대표가 됩니다. 성경에는 나무나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푸를것 같은 왕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시듯이 하던 그 음성을 발하시면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더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의 글을 쓴 날 밤에 그의 권세는 꺾어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세상에 큰 세력을 자랑하는 불멸의 대국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암사슴도 낙태하고 담배하던 자도 실수를 하고 없어지고 울울창창 하던 자유당 세력도 말끔히 청소하여 버립니다. 이 음성은 하늘에서 참다못하여 발하시는 심판의 음성입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말하기를 뇌성벽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웅변했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읍니다 「과학적으로 음전과 양전이 부딪치는 곳에서 나는 빛과 소리가 뇌성벽력이 아닙니까」고 또 「만일 벼락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악인의 머리에 내리치지 않고 왜 하필 벼락의 나무에 찌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부흥사는 대답했읍니다.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은 왜 칠판을 치며 왜 책상을 때립니까? 이것은 선생님의 지혜요 선생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발로요 학생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책상을 치고 칠판을 치고 소리 소리쳐도 말을 안들으면 필경 학생도 때리고 심하면 퇴학도 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당장에 벼락을 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참고 참고 참으시면서 나무나 돌이나 산에 벼락을 쳐서 사람으로 각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뇌성의 심판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목사의 시편감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월 중 결혼)

- 서진윤군/주교교사 4일 오후 1시 육군 중앙교회당에서
- 김진창군/백여송양(재미 김인화집사 딸) 7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고성환군/고상국씨 아들과 나금옥양 나관동씨 딸 16일 오후 1시 30분 결혼 하나나 예식장에서
- 이옥윤양/이갑재씨 동생 17일 오후 2시 CCC회관에서
- 정인숙양/정진목씨 지역실권사 딸 21일 오후 2시 영락교회당에서
- 김인식군/염동걸집사 아들 2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에리양/김만국씨 장영옥집사 장녀 27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박찬희양/산업전도교육부 교사 27일 오후 1시 퍼시픽호텔에서
- 이근웅군/이남호 여옥기집사 장남과 한은경양 중곡 2구역 31일 오후 1시 타워호텔에서
- 이명자양/유치부교사 2월 1일 오후 3시 세종호텔에서

위로합니다(1월 중 별세)

- 홍태운씨/김동호집사 시부 8일 별세 10일 장례
- 장계철씨/동교구 윤문자씨 시부 11일 별세 13일 장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여행의 역독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워낙 바쁘셔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면서 뛰시다가 지난 3일 갑자기 악화되어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지난 3일 퇴원하셨습니다. 온 교우들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어 어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단위에 서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2.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염원 속에 시작된 성전건축의 설계가 3월에 마치면서 착공이 되어 금년에 정지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3. 기도원 완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말경에 완공될 기도원의 마무리공사를 위해 같은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4. 해외복음 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들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5.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복녀땅 이북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민족에게 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하여 기도로 후원합니다.

구역장 노우트

당면한 업무 분담과 한계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금년도에 많은 구역을 증설함으로써 그만큼 권찰의 인원이 증가하고 한편 새로 간사제와 구역교사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구역요원수는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많은 일거리들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적당히 분담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구역장-구역원들을 잘 파악하고 권찰들을 통솔하여 교회가 의도하는 바를 바로 전달하며 구역내에서 되는 일들을 정확히 보고하는 일을 해야 한다.

① 구역원들에게 교적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언제나 교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② 각종 현금및 회비통장 등은 본일들이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권찰들이 일괄 찾아다 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구역원들의 통장번호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가 경우에서 따라서는 구역장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찾아주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③ 신규별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출할 것이며 1부는 비치해 두었다가 이것에 기초해서 인원통제일지를 작성·간수하고 그 내용대로 월말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통제업무상 유의할 점은 부모님이 본교회에 출석하면 7세(72년생까지) 미만의 유아세례인은 무조건 계수하고 8세(71년생부터) 이상의 유아세례인으로 본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수에 넣지 말아야 한다. 원입교인(세례 입교 학습등 받지않은 교인)은 15세(64년생부터) 이상된 사람만 계수해야 한다. 월말보고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항상 구두로 담당구역자에게 미리 보고한 후 요망사항만을 이용하여 붉은 글씨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2. 간사-각지구별로 3명씩(계 15명) 간사를 두고 각구역에서 제출되는 보고서를 접수 처리하고 구역으로 배포되는 각종 문서와 물품을 구역장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① 각종보고서 및 통제업무는 권찰회(매달 네배주일) 당일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 보고서에 붉은 글자로 쓴 긴급사항은 즉석에서 담당구역자에게 구두보고되어야 한다.

③ 각자의 관할 아래 있는 구역장과 늘 긴밀한 연락이 되도록 제안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예: 직장 주소, 전화번호 그밖에 연락처 등)

3. 구역교사-2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26일에 임명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① 성경교수법 ② 예배인도법 ③ 전교방법 ④ 교회생활에 관한 상식 등이다.

이 교육과 훈련에는 세례교인이면 직분에 구해됨이 없이 또 임명여부는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겠으며, 구역장들만은 필수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은 광범위하지만 교사임명은 구역집회 가능수요수를 참작해서 할 것이다(예: 70개 구역이 모이면 그이상 적당한 수를 확보하도록 임명한다).

나는 북경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 ◇..... 다음은 최근 중공을 방문했던 어느 외국인관광객이 북경에.....◇
-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후 홍콩에 있는 중국내륙지역 선교단.....◇
- ◇.....체인 차이나·리서취·센타(China Research Center)에 투고.....◇
- ◇.....한 간증문을 해외복음선교회에서 입수·번역한 것이다◇

지난 3년동안 나는 중공에서 일곱 주일을 지냈는데 매주일마다 교회를 찾으려고 무척 애썼다. 그러나 일곱주일중 여섯주일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매주일마다 여러 도시로 여행 수 없이 여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일은 여전히 중공에서도 휴일로 지켰고 주일은 보통관광여행으로 보내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일곱번째 주일에 북경에서 한 교회를 찾아 냈는데 관광하는 동안 미리 한 주일 전에 안내원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북경에 있는 그 교회에 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았다.

신교 교회가 없는 북경

제일고급 안내원이 내게 즉시 교회의 이름과 주소, 예배시간(오전 9시)등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을 보았더니 그것은 로마카톨릭교회의 명칭이었으므로 나는 프로테스탄트(신교)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되풀이 청원하였고, 중국어로 두 교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안내원은 그 차이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고급 안내원 하나가 말참견하면서 북경에 있는 그 교회의 이름은 분명히 로마카톨릭교회라고 말하였다. 나는 만약에 신교교회가 있다면 신교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그랬더니 그 고급안내원은 마침내, "나는 그와 같은 종교를 믿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주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신교교회를 찾아서 내게 연락을 해 줄 것을 간신히 그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와같은 사실은 비록 그가 북경에서 외국인의 관광을 위한 정식 안내원일지라도 신교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요청을 여지껏 받아 보지 못했고 로마카톨릭교회 예배에만 참석하기를 원하는 요청만이 흔히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으로 북경에 있는 로마카톨릭교회는 해외신문에까지도 게재된 바와 같이 필리핀성가대의 공식적인 방문도가졌으나 신교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모든문이 굳게 잠긴 조그만집

안내원은 약속대로 주일 오전 8시 30분에 내게 알켜 주었는데 東西青年滙教堂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신교교회예배가 있다고 했다. 장조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기독교청년단체(Y.M.C.A.)가 열리는가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나는 그곳이 성경연구단체로 사용되는 건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거의 3층 높이의 전형적인 중국의 구식으로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다. 모든 도어마다 창과 작은문들이 굳게 잠겨있어 출입이 금지된 것처럼 보였다. 문에는 아무런 표시판도 없어서 내가 한 발자국 옮기려고 잠시 멈춰서고 있을 때 부드러운 긴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문앞에 다가오더니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이 안에서 예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내게 바로 잘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여자(교회의 사할이었다)는 내게 문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라고 말했다. 층으로 올라가보니 거기에는 약 8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방이 있었고, 마치 예배당과 같이 완전한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르간, 성경 낭독대, 공중예배를 위해 설치된 테이블, 그리고 칠판이 있었고, 영어로 쓰여진 그날의 읽을거리와 참고서적등이 함께 있었다. 장로 두분이 내게 인사를 했는데 그들은 그 교회의 세분 목사님중에 두 분이었고, 한분은 지금 예배인도를 위해 준비중이었다.

주일 오전 단 한번의 예배만

이 세분의 목사님과 오르간 반주자(그도 역시 장로) 한분과 아까 여자 사할이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그들의 전부의 일이었다. 정식모임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있는 주일 예배였으며, 평일에 드리는 예배는 없고, 성경공부도 없고, 성가대활동도 없고, 청년면회회나 주일학교도 일체 없다. 1966년 문화혁명이후로 세례식은 금지되었고, 그 이전에는 주일예배에 40-500명이 모였으나 지금은 너무 일에 바빠서 거의 참석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회는 초교파적이고, 세분 목사님 중에 한분은 영국교파이고, 한분은 감리교파 출신이었다. 교인가정집방은 실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한 가정에 교인이 있더라도 한 사람밖에 없으므로 목사님들이 집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날 약속을 하고 상담을 할 수는 있다.

1966년 문화혁명후 세례식 금지

그래서 나는 목사님과 15분동안 이야기한 후 그뒤로 다른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므로 뒷편 테이블에

놓여 있는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주보(2면)를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았다. 거기에는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중국어로 된 신약과 성경들과 중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성경들로 모두 30여권이 되었다. 성도들은 각자 개인 성경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성경을 인쇄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재 부족되는 성경은 없다고 말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들은 구식활자체로 쓰여진 오래된 성경들이었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주보는 최신 활자체로 타이프로 찍은 것이었다.

④찬송가 책은 없으나 주보 뒷면에 다섯 내지 여섯곡의 찬송가가 실려 있었다. 오전 9시 30분 바로전에 반주자는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곧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검은 카운을 입고 등단하였다. 주보의 순서에 따라 목사님의 인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형식은 회중의 응답과 함께 영국교회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회중은 중국어와 영어로 된 교육문을 읽고 찬송가를 불렀다. 주보에 실린 찬송가들 중에는 “내기도 하는 한 시간”과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있었고, 세계의 성구가 적혀 있었고 (잠 2:1-22, 마 6:5-5, 뱀전 2:1-10) 이것을 차례로 봉독하였으며, 설교와 광고는 없었다.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문을 낭독하시면서 영국식 감리교형식의 성찬예식(거의매주일 실시)이 행해졌다.

외국인을 위한 것—중국사람 없어

우리는 앞쪽에 나가 성찬예식에 참여했는데 각 개인에게 포도주를 주었고, 떡은 크레카 과자같은 것이었다. 그날에 회중은 모두 32명이었는데 중국인이 약간 있었고, 목사님들을 제외하면 중국인들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대사관의 직원들, 외국유학생 그리고 관광객들이 떡을 떼며 한 분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필리핀인, 영국인, 캐나다인, 인도인, 아프리카인들이었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섞인 모임이었다.

마지막 송영과 축복이 있는 후에 예배는 반주자의 “그리운 그 옛날”이라는 거치른 반주와 함께 10시 20분에 마쳤다. 나는 그중 북경에 수년동안 체재중이며 예배에 고정적으로 참여했던 백인유학생 한 사람과 더 이야기할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이르기까지 이교회에 예배는 캐나다 대사관의 여러번 요청으로 1973년도에 다시 시작한 것인데 대사관의 많은 간부들이 전에 중국선교사의 자녀들이었다고 한다. 이곳이 북경에 있는 외국인 성도들을 위한 회합장소로 되었고, 부활절날에는 때때로 소풍도 간다고 한다. 나는 그 백인유학생과 주일 오후를 보내면서 모택동과 주은래 사망 이후의 중국의 중대한 변화와 권력분쟁에 대하여 토론했다. 그는 또한 문화적인 충격과 중국에 와 있는 외국유학생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게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렇게 나는 북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내생애에 쉽게 있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분들은 중공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는가? 그들의 지도자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8억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중국 성도들은 이렇게 자주 말한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국민들보다도 중국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성도의 편지

사랑하는 충현 식구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문안 드립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리워지는 고국의 생각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충현교회에 대한 그리움은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매달마다 부치는 충현지를 통해 상세한 교회행사와 활동신앙교육 알찬 설교문들은 나로 하여금 아직도 충현의 한식구로써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만큼 자세하고 세밀하게 소식을 보내는 여러분의 정성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한가지서 운함이 있다면 직접 나 스스로 교회 마당을 뛰어들어 함께 어울려 여러가지 행사속에 끼여 있지 못합니다. 종종 주위의 친구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물음때마다 알찬조직과 행사라든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간증등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매우 감명깊게 듣는답니다. 나 역시 우리 충현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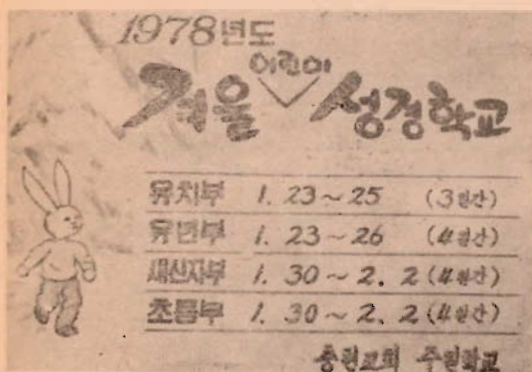
이곳에는 많은 착실한 교인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말할 수 없이 타락되고 부패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아는 한 미국 부부는 한국 고아를 양자로 키우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국민족이 제의 태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도 모른다면서 그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존경함을 전하였읍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많은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써 자부심을 잃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물랐던 많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깨달아 가며 그와 덕분에 고국에 가고픈 마음은 더욱 더 등이 달았습니다. 낯설은 곳에서 려운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늘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은 나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며 교훈 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인도를 기다리며 훈련중 이랍니다. 다시한번 충현 식구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보내며 특히 충현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들이나 간사 기자들에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더욱 더 주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 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스프링필드에서

정정신 드림

각부 계절학교(겨울) 개교

지난 1월18일 고등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1978년도 겨울 계절학교가 지난 1월 18일 고등부제 8회 동기수양회를 시작으로 하여 그 막을 올렸다. 주일 학교 12부 중 장년·노년부를 제외하고 주일학교 10개 부가 모두 겨울 계절학교를 열게 된다.

고등부에 이어 1월 23일부터 3일간 유치부·유년부, 1월 30일에는 새신자부(어린이), 초등부순으로 이어진 금년도 겨울계절학교는 2월 28일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될 영아부 계절학교를 끝으로 마치게 된다.

금년 계절학교의 외부적 특징은 장소가 모두 본 교회당을 사용(산교부 제외)한 점과 청년부와 산업전도 교육부가 78년도 처음으로 겨울 계절학교를 열었다는 점이다. 금년도 겨울계절학교의 총예산(예상)은 약200만원이며 참가대상인원(일평균)은 학생 2,000여명이다.

1978년도 주교각부 겨울계절학교 실시 일정표

부 명	일 자	강 사	장 소	주 제	주 제 찬 송	표 어
새신자(어)	1.30~2.2	이성근목사	새신자부실	외로운 사람	280	외로운 사람이 되자
영 아 부	2.28~3.1	이성근목사	영아부실	참고 도와 줄래요	착한 아기 될래요	도와 주는 아기 되자
유 치 부	1.23~25	이성근목사	유치부실	외로운 사람	하얀마음검은마음	예수님이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자
유 년 부	1.23~26	장규대선생 어린이전도 협회총무	본 당	외로운 사람	280	외로운 사람이 되자
초 등 부	1.30~2.2	이성근목사	본 당	외로운 사람	280	오직 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 등 부	1.30~2.2	홍정식 전도사	본 당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371	
고 등 부	1.18~22	양승달목사	본 당	새 생 활	289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자
산 교 부	2.7~8	김하진목사 김수성 전도사 김순애 //	서울기도원	그리스도를 배우자	440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대 학 부	2.13~16	임종만목사	본 당		495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청 년 부	2.26~28	미	정청년부실			

기도의 집인 총현기도원 —5월말 완공예정—

총현교회 은 성도들이 숙원하던 총현기도원의 90% 공정을 마치고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총현교회식구들의 기도와 수양훈련장(場)이 될 본기도원은 지난해 5월 26일에 착공하여 1년에 걸쳐 5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공정내용을 보면 식당과 본당 밑 지하실바닥의 인조석 깔기과 식당의 창문의 유리공사, 우물 변소 등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교회는 늦어도 5월말이면 완공될 기도원을 위해서 계속기도 해주고 기도원을 이용하실 준비를 미리부터 기도도 준비하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대회 개최키로

교회설립 25주년과 해외선교 10주년을 맞으며 해외 선교회(회장: 위영환 장로)는 선교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1978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릴 이 대회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서만수 선교사 내외와 홍종만 선교사 내외를 초청하여 보고 및 간증 등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쇄실 관리—출판위에서

당회는 지난 1월 19일 임시당회에서 인쇄실 관리를 출판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인쇄실장에는 출판위원회의 정은표 집사가 담당키로 했으며 그동안 주교에 소속되어 있던 정정주집사, 김차철, 강영철 씨를 출판위원회로 전보했다.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준비위원회 구성

당회는 지난 1월31일 정기당회에서 교회설립 25주년기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모든 세부계획 및 시행절차를 기념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조 직

가. 준비위원

교문: 김창인, 강지순, 오중락, 김천준, 윤두한, 김연순, 이명달.

위원장: 송준일(당회서기) 부위원장: 한명옥, 황기성

서기: 이응선 부서기: 오태희 회계: 정석태 부회계: 윤명식

위원: 서무부장, 예산부장, 성가부장, 재정위원장, 전도위원장, 출판위원장, 전속위원장, 선교회장, 기도원사무소장

상임위원: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나. 분과위원회

1) 25년사 편찬위원

위원장: 조현명(출판위원장) 부위원장: 김기정

위원: 전희문, 홍중섭, 윤명식, 김의철, 조선근

2) 식장 준비위원

위원장: 윤종성(재정위원장) 부위원장: 윤용규

위원: 황창룡, 김창배, 박정수, 최성립, 김은호

3) 포상준비위원

위원장: 윤종순(서무부장) 부위원장: 김종석

위원: 김한울, 이태규, 오태희

2. 사 업

추진위원장: 위영환(선교회장) 부위원장: 최석주

위원: 오승환, 이원철, 임광식, 한경일, 지금산

4부 예배 성가—대학부 성가대에서

금년부터는 4부예배의 성가를 대학부 성가대가 담당키로 당회는 지난 1월19일 결정했다. 그동안 대학부예배 성가와 저녁예배 성가를 담당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대학부 자체 예배가 없어지고 대예배를 드림에 따라 4부성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녁 찬양예배의 성가는 첫째 주일은 제일성가대, 세째 주일은 제이성가대, 다섯째 주일은 여성성가대, 둘째 주일은 각부 헌신예배부서가 담당키로 했으며, 1부—3부의 대예배 성가는 종전과 같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 1978. 2. 5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회〉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111,260 272,550 302,150 61,360 3,865,615 627,300 549,000 26,500 74,000 3,358,984 72,000	
예배	주 일 낮	163	322	485				
	주 일 저녁	367	861	1,228				
	주 일 새벽	379	730	1,109				
새신자	영아	87	226	313				
	유아	232	369	601				
	초등	105	301	406				
영유아	영아	17	18	35				
	유아	26	54	80				
	초등	80	63	143				
중고대	초등	94	61	155				
	중고대	149	135	284				
	창장노년	147	173	320				
산업교육부	창장	187	147	334				
	노년	147	177	324				
	부	101	85	186				
교육부	부	59	78	137				
	부	27	263	290				
	부	23	74	97				
계		2,403	4,203	6,606	주 일 학교	새신자	자부 아 초 중 고 대	2,770 23,150 26,440 32,735 26,015 61,820 73,550 54,728
계		9,621,927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588	2,324/3,605	1,354/2,516	298/33	224/332	448/524

토막소식

*...성경학원은 지난 2월 5일(주일) 저녁 예배시 지도자양성부 제 12기 수료예배를 드렸는데 수료자수는 남 19명, 여 45명 총 64명이다.

*...어린이 새신자부는 3월 12일 「교사교수법에 관한 특강」을 어린이 새신자 부실에서 가졌다.

*...영아부는 지난 1월 19, 20일 양일간에 걸쳐 영아부실에서 연 초교사특별회의와 결해서 교사 자체수련회를 가졌다.

*...유치부는 지난 1월 23-25 일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유년부는 3월 12일 오후 3시부터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년부는 3월 26일 봄 학생전체집회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초등부는 오는 3월 19일 자체부장단으로 결원단을 구성 자체사무감사를 할 예정인데 주로 출석부 점검, 생활기록부 점검등을 할 예정이다.

*...중등부는 지난 1월 14일 초등부에서 올라온 신입생을 환영하는 모임을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고등부는 지난 1월 15일 공과교수, 학생실리, 심방의 실제등의 제목을 가지고 자체 교사훈련을 가져 큰 성과를 얻었다.

*...고등부면련회는 오는 3월 5일 교사초청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전전도교육부는 부활절을 맞아 3월 26일 고아원을 방문 위로할 예정이다.

*...대학부는 지난 1월 5일 대입수험생을 위해 대입수험생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지난 1월 2, 3일 입마누엘기도원에서 신년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오는 3월 26일 빛분의 교역자및 청년부의 전 회장단을 초청하여 특별 초청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년부는 지난 1월 23일, 입승원목사를 모시고 「장년부 주일학교의 발전책」이란 제목으로 교사특강을 가졌다.

*...노년부는 오는 3월 19일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 자 석

○...새로운 해(年)를 맞이하면 우리네들의 주위는 늘 분주하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가정적으로는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준비하느라고,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사업과 봉사자를 위해,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과업을 위해 늘 분주한 것이다.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을 그 내면에 반드시 필요라는 요소가 있기에 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필요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고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진가는 흔히들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지 필요성을 느낄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남이 필요로 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이 필요로 하게끔 필요한 행동과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되는 필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년에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애국자가 되기 위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충성된 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 필요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한다. 나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내가 산다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

○...78년의 맺고동이 울려 출항을 한지도 1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무슨 보화를 싣고 자신있는 듯 커다란 고동소리와 함께 오늘도 쉬지 않고 전진만을 하고 있는가?

금년 「월간충현」이 늦은 출발은 하였지만 좀더 새로운 향로를 개척해 보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출항했다. 금년부터 3페이지에 「월간충현」의 목적 ① 개혁신앙의 전파 ② 말씀의 생활화 ③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좀더 높이 올라가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말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밀알이 될 수 있는 보화를 싣고 항해하기를 원한다.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어느덧 달력이 한장 넘어가고 2월도 거의 끝을 다해 가고있다. 다연 연초에 다짐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라면 지금은 78년도 계획의 2/12가 달성되어 가고 있어야 한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특히 주님 앞에 세운 다짐들이 제대로 실시되어가고 있는지를 다짐하고 넘어가야 한다. 기도의 약속, 말씀 충만의 다짐, 헌금 봉사의 작정 등...언제나 연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실행하는 사람만이 빛을 말할 수 있고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처럼 금년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는 교회도 쉽지 아니하리라. 새성전건축, 해외선교, 주일학교 교육 등의 많은 문제들이 세상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이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린 무엇보다도 연초에 다짐했던 기도, 말씀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도 아울러. (이)

편집하고 나서

*...이달도 또 늦어졌구나 생각하며 마지막을 손질하게 되니 죄송하기 그지없다. 늘 주위에서 또 먼 곳에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빠른 기간내에 정상케도의 발간일을 맞추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 제신 당회장 김목사님을 만나뵙고 해의 여행의 과정과 그 성과 등을 들어보았다. 그중에 특히 북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북한 선교의 이모저모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말씀을 들은 후에 얻은 확증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끝없는 길」이다. 곧 끝없는 능력이 북한 선교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북한선교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나의 일이란 사실을 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제목에 한가지를 추가하자.

*...어렵게만 느껴지어 일반 평신도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를 출판위원회지도로 제신이 성근 목사님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집필하여 주신다. 모두가 숙독하여 확실한 기반 위에 우리의 신앙이 건립되었으면 한다

*...그동안의 「찬송가 해설」이 이달부터는 「찬송가 감상」으로 바뀌어 김중석 전도사님이 담당하여 주시게 되었다. 새로운 이해로 대하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2년여동안 이난을 담당해 준 김인숙 기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영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례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윤영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2월호 통권 제50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2월 26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1월 29일 선교의날을 맞아 일본 평신도 선교사 유병세 집사의 부인인 이윤호 권사가 오셔서 보고를 했다.



◇ 78년도 계절학교(겨울)가 지난 1월 18일 고등부수양회로 막을 올렸다. 고등부회원중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원들이 특별찬양을 하기도 했다.



◇ 중등부수양회가 1월 30일부터 본교회에서 있었다. 강사 홍정식 전도사의 특강모습이다.



◇ 1월 30일부터 4일간 있었던 초등부 겨울어린이 성경학교.



◇ 유년부도 1월 23일부터 4일간 겨울어린이 성경학교를 가졌다.



◇ 기도원이 현재 90%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다. 5월말까지 완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찬양에 대하여

찬양이란 예배와 기도의 한 방법일 뿐 아니라 신령한 싸움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혹 자기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마귀가 더욱 강하게 발악해서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주장하실 것을 의심하고 계속하여 더 믿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거절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하나님이 상관했다고 바로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 않다. 나의 팔이 부러졌거나 나의 차가 부러졌거나 내 남편의 나쁜 버릇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물론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 뛰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로 그렇게 하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나는 느헤미야 8장 10장 말씀을 읽는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원수의 화살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큰 무리의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카로데스 저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중에서

월간충현 2월호